

# 수비 실책... 또 실책... KIA 4연패 '수렁'



구슬땀에 실패한 '호랑이 군단'이 4연패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14차전에서 3-8패를 기록했다. 두산에 3개의 홈런을 내준 KIA는 투타자 박찬호의 부재를 실감하면서 4연패에 빠졌다.

잘 던지던 파노니가 2회 '한방'을 얻어 맞았다. 1회를 11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로 막았던 파노니는 2회에도 양의지를 좌익수 플라이, 로하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첫 안타를 홈런으로 내줬다.

지난 15일 경기에서 KIA를 상대로 사이클링 히트를 장식했던 강승호가 하루 쉬고 다시 담장을 넘겼다. 강승호는 파노니의 5구째 118km 커브를 받아 좌월 솔로포를 기록했다.

파노니가 실점은 했지만 허경민을 3루 땅볼로 잡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어 KIA도 득점을 만들었다.

김선빈이 선두타자로 나와 안타를 생산했다. 황대인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변우혁과 한준수가 연속 안타로 김선빈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사 1-2루, 김도영이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1-1로 맞선 3회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 1사에서 조수행에게 번트 안타를 허용한 파노니. 2사에서 정수빈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김재호의 땅볼 타구를 3루수 변우혁이 놓치면서 이닝을 끝내지 못했다. 이어 양석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1-2가 됐다.

5회 두 팀의 힘싸움이 전개됐다. 5회초 파노니가 선두타자 박준영에게 5구째 14km 직구를 공략당하면서 솔로포를 허용했다. 이어 조수행에게 중전안타를 내준 파노니는 정수빈의 번트안타와 양석환의 중전안타 등 두산 타선에 진압을 흘리면서 5회에만 3실점을 했다.

1-5로 뒤진 5회말 KIA도 홈런으로 추격을 했다. 2사에서 최원준이 중전안타로 출루했고, 나성범이 두산 선발 알칸타라의 2구째 132km 포크볼을 받

## 두산과 홈경기서 3-8패 3루 등 내야 실책 잇따라 부상 박찬호 부재 실감

아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장식했다.

하지만 아쉬운 수비가 이어지면서 중간 싸움에서 KIA가 밀렸다.

6회 유격수 김도영의 실책은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7회초 정수빈의 땅볼 타구를 잡은 투수 김대유의 송구 실책을 시작으로 KIA가 다시 1실점을 했다.

8-9회에도 선두타자 강승호의 2루타와 함께 실점점 이 쌓여갔다. 9회에는 양의지의 홈런이 나오면서 3-8까지 벌어졌다.

9회 마지막 추격의 기회는 있었다. 변우혁과 대타 이창진의 연속 안타로 만든 1사 1-2루. 김도영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최원준의 볼넷으로 베이스가 가득했다. 타석에는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나성범이 섰다. 9구까지 가는 승부가 펼쳐졌지만 나성범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경기는 3-8패로 끝났다.

앞서 12일 삼성과의 원정에서 3개의 홈런씩 기록한 끝에 9-10 패를 남긴 KIA는 13일 홈에서 만난 롯데에는 1-3, 6회말 강우콜드패를 기록했다. 15일 두산전에서는 이우성의 프로 첫 만루포가 나왔지만, 두산 강승호에게 KBO리그 통산 30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허용하면서 6-8패를 당했다.

그리고 17일에는 홈런 3방을 맞으면서 4연패에 빠졌다.

뜨거운 9월을 이끌었던 투타자 박찬호의 부재가 느껴진 연패. 박찬호가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타석에서 이탈한 사이 김도영이 공격 전면에 섰지만, 투타자로 나선 3경기에서 12타수 무안타 1볼넷만 기록했다.

또 김도영이 유격수로 이동하면서 최정용과 변우혁이 3루에 들어섰지만 내야에서 잇단 실수가 나오면서 KIA가 연패에 빠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KIA 나성범이 5회말에 투런홈런을 때리고 베이스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수문장' 김경민, 광주의 승리 지켰다

광주FC, 천적 서울에 1-0 승리 김경민 유효슈팅 9개 모두 막아 서울 5점 차 밀어내고 3위 유지



'수문장' 김경민이 광주FC의 승리를 지켰다.

광주가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와의 K리그1 2023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허울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승리로 10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린 광주는 승점 2점 차로 쫓아오던 서울을 따돌리고 3위 자리를 지켰다.

3위 수성을 놓고 벌인 중요한 일전, 광주는 세 번째 대결에서 서울전 첫 승을 장식했다. 광주는 앞서 서울과 두 차례 만나 0-2, 1-3 패를 기록했다.

경기 흐름은 서울이 주도했다. 이날 경기 점유율은 서울 61%, 광주 39%를 기록했다. 슈팅 수에서도 서울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광주가 3개의 슈팅에 만족했지만 서울은 18개의 슈팅을 퍼부었다. 이중 9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지만 김경민이 이를 모두 차단하면서 승리의 수훈 선수가 됐다.

전반 4분 만에 허울의 골이 나왔다. 두현석이 왼쪽에서 하승운에게 공을 넘겼다. 하승운은 힐패스로 문전에 있던 허울에게 공을 연결했다. 이어 허울이 왼발로 골대 오른쪽을 뚫으면서 선취점을 만들었다.

17분 광주가 역습 위기를 맞았다. 서울 김선진이 중원에서부터 공을 몰고 광주 진영으로 달려들었다. 골키퍼 김경민이 슈팅을 막았지만 흐른 공을 잡은 김선진이 다시 공을 터치해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고,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광주가 한 숨을 돌렸다.

전반 32분 프리킥 상황에서 아사시가 키커로 나서 왼발로 서울 골대를 노렸다. 골대 앞에서 바운드된 공이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반 막판에도 서울은 거세게 광주를 몰아붙였



김경민

다. 전반 44분 임상현의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냈고, 추가 시간에는 이순민이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서울에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다.

팔로세비치가 때린 공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편칭으로 전반전을 1-0으로 끝냈다. 후반 초반부터 서울의 공세가 매서웠다.

후반 5분 오스마르의 헤더가 이어졌지만 정확성이 떨어졌다. 후반 10분에는 김경민이 다시 한번 좋은 수비로 실점을 막았다.

나상호가 왼쪽에서 공을 몰고 문전까지 진입한 뒤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공이 그대로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편칭으로 서울의 득점을 저지했다.

바로 이어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기면서 윌리안에게 슈팅을 허용했다. 이번에는 문전에서 안영규가 머리로 공을 막아냈다.

후반 18분에는 기성용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지만 김경민의 좋은 수비로 골대를 지켰다.

이어 모처럼 광주의 공격이 전개됐다. 아사시가 재치있게 코너킥 상황을 연출했고, 두현석이 키커로 나섰다. 서울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연달아 슈팅을 퍼부었다. 하지만 광주는 '최후의 보루' 김경민이 있었다.

몇 차례 슈팅을 막아낸 김경민, 후반 24분 코너킥 상황에서 지동원이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김경민이 공을 품어 안았다.



허울

서울의 공세를 막아낸 광주가 후반 38분 환호성을 질렀다. 엄지성이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앞선 볼 경험 과정에서 벤키가 반칙을 했다든 판정이 나오면서 무효골이 됐다.

1점의 피말리는 승부, 7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후반 47분 프리킥 상황에서 서울 기성용이 띄운 공이 지동원의 헤더로 연결됐지만 공이 높게 됐다. 광주는 이후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면서 서울을 상대로 극적인 1-0 승리를 완성했다.

이 승리로 광주는 4위 서울을 5점 차로 밀어냈다. 2위 포항과는 8점 차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박혜정 3관왕 '번쩍'

세계역도선수권 여 87kg 이상급 인상 124·용상 165·합계 289kg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20·고양시청)이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최종량급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박혜정은 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87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4kg, 용상 165kg, 합계 289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세계역도선수권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에 모두 메달이 걸렸다.

박혜정은 3개 부문에서 모두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최종량급에서 우승한 건, 2021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회 손영희(30·부산시체육회) 이후 2개 대회, 2년 만이다. 하지만, 2021년에는 역대 최강 중국이 출전하지 않았다.

또 손영희는 2021년에 인상에서는 2위에 머물렀고,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 2개를 땀다.

세계선수권 여자 최종량급 인상, 용상, 합계 모두 1위를 차지한 건 박혜정이 최초다.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현역 시절 총 4차례(2005년 카타르 도하, 2006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2007년 태국 치앙마이, 2009년 한국 고양시)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올랐으나, 이 기간에도 인상은 1위 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내줬다.

2023 세계선수권 여자 최종량급 강력한 우승 후보는 이 체급 3개 부문 세계 기록(인상 148kg, 용상 187kg, 합계 335kg)을 보유한 '도쿄 올림픽 챔피언' 리원원(중국)이었다.

하지만, 리원원은 이날 인상 1, 2차 시기에서 130kg에 연거푸 실패하더니 더는 플랫폼 위에 서지 않고 기권했다.

리원원이 경기를 포기한 뒤 박혜정을 위협할 선수는 없었다.

이 체급 합계 2위는 277kg(인상 117kg·용상 160kg)을 든 마리 테이슨-래프(미국)이었다. 박혜정과 합계 격차는 12kg이었다.

손영희는 인상에서 122kg으로 2위에 올랐지만, 용상에서 1차 157kg에 실패한 뒤 2, 3차 시기를 포기해 합계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연합뉴스